

장기 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원발성 신세포암의 임상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윤정민, 김영옥, 장윤경, 윤선애, 양철우, 진동찬, 김용수, 김석영, 장윤식, 방병기

장기간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신세포암의 발생빈도는 정상인에 비해 50-150배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지 않다. 이에 연구자들은 1993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10년간 가톨릭의대 8개 부속병원에서 장기간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발생한 원발성 신세포암의 임상적 특성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 환자는 투석 중에 발생한 원발성 신세포암 환자로 한정하였으며 투석 전에 신세포암이 발생한 증례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총 7예의 원발성 신세포암이 발견되었다.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46 ± 9 세 (38-65세)였으며 남자 6명 여자 1명이었다. 원인 신질환은 만성 사구체 신장염과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 (ADPKD)이 각각 3예였고 고혈압성 신증이 1예였다. 전체 7명의 환자 중 5명이 혈액투석 환자였고 나머지 2명이 복막투석 환자였다. 평균 투석기간은 82 ± 46 개월 (24-168개월)이었다. 신세포암 발견시 주요 증세는 2예에서는 전혀 증세가 없이 우연히 발견되었으며 3예에서는 측복부 동통이었고 2명에서는 복부 종괴의 촉진이었다. 전 환자에서 복부 초음파 및 복부전산화 단층촬영이 시행되었으며 종양의 크기는 평균 3.1 ± 1.9 cm (1-7 cm)이었으며 ADPKD 이외의 환자에서는 모두 다수의 낭종이 관찰되었다. 측복부 동통을 호소한 3명 모두는 종양의 파열이 있었으며 이중 2명은 ADPKD 환자였다. 악성종양의 TNM 분류에 의한 결과 6예가 stage I이었고 나머지 1예는 폐에 전이되어 stage IV였다. Stage I의 6예는 모두 신적출술을 받았으며 평균 45 ± 35 개월 (14-96개월)의 추적기간 동안 1명의 환자에서 신세포암과 무관한 간암 파열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5명의 환자는 재발 없이 투석을 받고 있다. Stage IV의 환자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며 발병 1개월 만에 사망하였다. 결론적으로 장기 투석 환자에서 발생하는 신세포암은 대부분이 조기에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환자에서는 신적출술의 예후가 양호하였다. 또한 원인 신질환 중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의 빈도가 높았으며 종양 발견 당시 종양 파열이 흔하게 나타났다.